

칼럼

황만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 한방소아과 전문가



청소년들 비쩍 마르게 하는 '크론병'

보통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질병인 크론병은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서구식 식습관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 등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이상면역반응 또는 자가면역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입일 증상적으로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 '만성 장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오해해 크론병인 것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투병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결과는 매우 심각해진다.

한창 젊을 때인 20~40대에 합병증으로 '대장암'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장에 구멍이 뚫리는 '장 천공'이나 장이 붙어버리는 '장

협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환자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0년 1만 2770명 수준이던 환자 수가 2014년에는 1만 8503명으로 약 5년 동안 45% 정도가 늘어났다.

특히 전체 연령 중 10대 환자 수가 급증했다. 만 10~19세 환자가 약 5년 사이에 55% 증가한 것이다. 특히 크론병은 성장기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사실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크론병임을 미리 잘 알아챌 수 있다.

10대 청소년 크론병은 성인과는 달리 살이 급격히 빠질 뿐 아니라 심각한 성장 장애가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

또한 크론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중 약 55~60%에서 항문에 구멍이 생기거나 고름 덩어리가 잡히고, 항문이 찢어져서

새살이 돌아오는 항문 질환이 동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증상 파악이 중요하다.

만일 청소년에게 키가 많이 작고 체중 감소가 있으며, 평소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많이 하며, 항문 질환(치루)까지 생겼다면 반드시 크론병 검사를 먼저 받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만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10대 청소년 크론병은 성인에 비해서 예후가 별로 좋지 않고 재발이 잘 되며 유병 기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긴 만큼 최종적으로는 결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집중적인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하다.

또한 10대 청소년 크론병 치료는 완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불편한 증상들을 하나씩 줄여 나가고, 질병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최대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의료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양약과 한약을 병

용 투약하며 다각도로 증상 개선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2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 : 체계적 문헌고찰 및 환자군 분석을 통한 진료 알고리즘 탐색'이라는 한의학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중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캐나다 등지에서 시행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한약과 양약의 병용 임상 실험 결과를 메타 분석한 논문인데, 분석 결과 양약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병용해서 투약했을 때 환자가 관해(寛解) 상태에 이를 확률이 크론병의 경우 67%,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22%가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더욱이 양약 단독 사용에 비해서 관해 유도 확률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부작용 발생 빈도 또한 양약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10대 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적 증상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약 처방으로는 오령산, 향사평위산, 계비탕, 삼령백출산 등이 있다.

면역 기능 조절 및 소화기계 만성 염증 치료 한약을 통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로 청소년 크론병 증상 개선은 물론 관해 유지에도 커다란 임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약 치료와 함께 침치료 또는 뜸치료도 임상적 상황에 따라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체계적인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社說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된다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니 운전자들의 각성이 촉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더 많은 보험료를 위반 경향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보험사가 이 제도로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수준은 변동이 없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 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견줘 12.2%나 높았다. 운전 중 DMB 시청과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엄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晦 그믐 회
魄 녀 백
環 고리 환
照 비칠 조

晦魄環照

▷ 뜻 : 달이 고리와 같이 돌며 천지를 비치는 것을 말한다.

기고

이삼호 순천경찰서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나아가 '존중'이 필요하다

8개월 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찰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부여되었다.

이에 경찰은 젠더폭력 근절, 학대 및 실종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현재까지 나름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지만 전폭 전주의 '고준희

어린이' 실종사건 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점의 보완 진행형이라 할 수 있겠다.

청년실업의 증가 등 사회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미약함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 원인을 보면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은 나아졌지만 이에 비례하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도 함께 성장하면서 오히려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나만 피해입지 않으면 되고, 내 집 앞에서는 안 되고 나와 상관 없는 일은 못 본체 하고 등등 극단을 향해 치닫는 무관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험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하여 왔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열거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보호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 공동체적 함의로 자리 잡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배려를 전제로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Hwanung' (화응성) featuring a young woman and an elderly wo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social harmony.